

2018 성탄메세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요한복음 10:10절 말씀처럼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다. '완전한 생명'을 말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육신의 정의는 '부족함'이다. 만족이 없다. 한계치가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은 '한계'로부터 온다. 그 마지막 한계점이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한계선 아래에 있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아담은 '생명의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생명이 임한 유일한 존재이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다. 결핍이 없다. 다시 말해 '한계점'이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시간의 속성은 '영원함'이다. 그 영원함 안에 거하는 존재이다. 바로 이 상태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으로 호흡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육의 호흡도 결국은 '사망'의 한계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과 공존하는 육의 호흡)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생명의 속성을 말씀하신다. '풍성함'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생명의 존재들이 경험할 풍성함의 '문'이 되셨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실재가 경험할 진짜 삶이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진짜 영원한 삶의 실체를 알게 된다.

2.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제자를 찾아 가신다.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라. 아직 진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육의 모습을 한 제자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상태를 현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그들이 경험한 한계점을 보라. 그리고 한계점에서 경험된 실망과 좌절은 이들에게 있어 현실적 아픔이요, 고통이다.

[누가복음 5:5]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한계에 갇힌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 앞에 둔 인간을 보라. 어떤 것 하나 움켜 쥘 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 '죽음의 감정'이다. 생명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풍성함'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허구가 아니다. 진짜이다. 리얼이다. '풍성함'이 그 증거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중한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려 한다. 채우려 한다. 밤이 맞도록 고생한다. 그렇게해서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묶여있는 '죽음'이라는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한시적이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향한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려 가셨지만 생명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이다.

3. 생명의 생각 - 예수를 경험하는 삶의 풍성함

[누가복음 5:6-10]

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9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풍성함은 실재이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실재적 풍성함이다. 그 분이 아무것도 없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은 허구적 소설이 아니다. 현실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명확한 이유는 풍성함의 실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반응이 그 증거이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국 '육'의 인간이다. 실재적 증거 앞에서 영적인 고백을 한다. 본질의 고백이다. 무슨 말인가? 육의 존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 또한 영적으로 말씀하신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육의 한계를 넘어선 베드로의 삶 가운데 펼쳐질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른 삶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이와같은 풍성한 영의 삶이 조이폴 성도들 안에 있다. 주님을 따라 가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누릴 풍성함에 대한 (그물이 찢어지고 만선이 되는 기쁨)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

4. 결국 믿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한계를 넘어설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이 오늘 내 삶안에 있는 모든 한계점을 넘어선다. 생명의 생각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야한다. 그 믿음이 현실의 기적이 되고 풍성함이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라고 외쳤겠는가? 천사들은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안에있는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히든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13-14]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망의 몸의 저주를 끊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진짜 생명의 열매를 실제로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함이다.

(1) 내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고를 하라.

왕의 생각이다.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각이다. (영의 사고)

(2) 기대감을 가지라

기대감이 현실이 된다. 농부의 생각이다. (예- 자녀를 위해 농사짓는 아버지의 생각은 단순한 소작농과 다르다) 예수를 기대했던 동방박사는 왕이신 예수를 만났다. 기대감을 가지라.

(3) 큰 그릇, 한계없는 믿음을 가지라.

내 생각은 좁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왕의 생각은 다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왕의 명령은 진짜 현실이 되었다. 배가 컸다면 더 채워졌을 것이다. 내 믿음만큼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믿음의 발만큼 수확할 수 있다. 밭을 준비하는 것,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육의 자아의 한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에 이미 죽어 있음을 믿자. 그리고 진짜 풍성함을 누리자. 오늘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왕을 경배하자!!